

“불편한 현실 화두”... ‘인간수업’ 이 그릴 ‘나쁜 10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인간수업’ 온라인 제작발표회

돈 벌기 위해 죄책감 없이 범죄의 길 선택한 고등학생 그려

“불편한 현실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싶었고, 10대들의 이야기로 10대와 어른 모두에게 제대로 된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인간수업’ (극본 진한세/연출 김진민)의 제작사 스튜디오329의 윤신에 대표가 28일 오전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간수업’은 돈을 벌기 위해 죄책감 없이 범죄의 길을 선택한 고등학생들이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그린 넷플릭스 드라마다. ‘무법 변호사’ ‘개와 늑대의 시간’을 연출한 김진민 감독과 신예 진한세 작가가 합작했다.

우리 사회의 나쁜 현실과 10대들의 어두운 이면을 예리하게 그리며 이 시대에 필요한 강렬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드라마 ‘스카이캐슬’ ‘이태원 클라쓰’의 김동희, 아역부터 탄탄히 내공을 다진 정다빈, 그리고 배우 박주현 남윤수 등 청춘스타들이 모였다.

주인공 김동희는 “대본을 처음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작가님이 표현한 것

이 어렵게 다가오면서도 생생했다”며 “한국 드라마에서는 만나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웠지만 제가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김진민 감독도 대본의 새로운 매력을 강점으로 꼽았다. 김 감독은 “그동안 여러 작품을 연출해왔는데 ‘인간수업’은 대본을 받은 순간 나의 익숙함과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명한 여러 작가님도 계시지만, 오랜만에 참 좋은 작가를 만났다”라면서 참신한 글과 이야기를 연출로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동희는 ‘스카이캐슬’ ‘이태원 클라쓰’ 등 인기작에 출연한 것 이어 ‘인간수업’에서 처음으로 주인공이 됐다. 그는 “책임감 긴장감 두려움 등 여러 마음이 공존했다”라고 말했다.

김동희는 “지수가 나중에 극한의 감정까지 가서 잠도 잘 못 자는 상태를 맞는데 나도 같이 잠을 안 잤다. 그런 노력이라도 하고 싶었다”면서 “지수를 연기하면서 신경을 많이 쓴 건 현장에서 가서 감독님의 디렉팅을 받고 바로 받아들이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첫째라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극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긴장감이 있어서 즐기기 못 했지만, 정말 많이 배웠다”면서 “스스로 캐릭터를 잘 표현했다는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내 연기를 하는 걸 보고 ‘뭔가 나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정다빈도 ‘인간수업’에 대해 “내가 기존에 해보지 않은 것이고 처음 성인이 된 후 만난 작품”이라며 말했다. 이어 “그만큼 부담감 책임감이 컸고,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기쁠 때는 한없이 웃으면서 촬영했다”며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일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박주현도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다. 이에 대해 “일단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아직 실감이 나진 않는데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답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감독님을 통해서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한 부담감과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겁도 났다. 감독님을 많이 믿었다. 저를 선택해준 감독님을 믿고, 동료배우들을 믿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



력을 다해서 촬영했다”면서 김진민 감독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제작사 스튜디오329의 윤신에 대표는 최근 N번방 사건 등 청소년이 연루된 범죄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가운데 “두려울 정도로 놀랍더라. 이번 사태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도 내려지고,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얘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인간수업’이 불편한 현실을 얘기하는 계기가 되는 작품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제작자로서는 이 사회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심도 깊고, 책임감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간수업’은 파멸로 치닫는 이야기”라며 “그 이야기 속에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법칙을 조금은 불편하지만 나쁜 현실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라고 했다. 윤대표는 “주변에 있을 법한 아이들인데 극에서 극단적인 이면이 나오는 친구들로 그려졌고, 이들이 범죄를 선택했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린다고 설명했다.

또 “‘인간수업’을 통해 우리 현실에 대해 생각해보고, 10대들이 인간의 본능이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10대들이 주연이지만 어른인 우리도 삶의 여러 순간에 대해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오는 29일 공개.

‘커리어 하이’ 찍은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로 활짝 연 2막

멜론 · 지니 · 벅스 · 소리바다 · 네이버 등 5개 차트 1위



오마이걸 (OH MY GIRL)이 ‘살짝 설렜어’로 커리어 하이로 찍으며 그룹의 2막을 열었다.

지난 27일 미니 7집 ‘논스톱’ (NONSTOP)을 발매한 오마이걸은 타이틀곡 ‘살짝 설렜어’ (Nonstop)로 28일 오전 멜론, 지니, 벅스, 소리바다, 네이버 등 5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새 앨범 수록곡 전체를 차트에 올리며 성장세를 입증했다. 이는 오마이걸의 최고 성적, 커리

어 하이이다.

앞서 오마이걸은 2018년 발표한 ‘비밀정원’으로 멜론 실시간 차트 2위까지 달성했으나 1위를 눈앞에서 놓쳤다. 이후에도 ‘볼꽃놀이’, ‘다섯 번째 계절’ 등이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음원 차트 정상에 오르진 못했다. 매년 탄탄한 음악성과 대중성을 갖춘 곡을 발표하면서도, 그만큼 성적이 뒤따르지 못했던 오마이걸은 많은 가요팬들의 ‘아픈 손가락’

이었다.

하지만 오마이걸은 지치지 않고 앞으로 달려 나갔고, 지난해부터 조금씩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청량함을 가득 품은 ‘번지’로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크된 것은 물론, 지상파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엠넷 ‘퀸덤’에서는 기존에 보여준 청순, 상큼한 모습 외에 다채로운 콘셉트를 소화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데스티니’, ‘게릴라’ 등의 곡을 소화하며 진화한 퍼포먼스를 보여줘 ‘믿고 듣는 그룹’으로 거듭났다.

‘퀸덤’을 통해 실력과 매력을 증명한 이들은 올봄 새 앨범 ‘논스톱’으로 돌아왔다. ‘살짝 설렜어’는 리드미컬한 베이스와 에너지 넘치는 사운드에 절묘하게 블렌딩된 업템포 댄스곡이다. 기존에 오마이걸이 보여준 상큼함과 청량함을 품으면서도 성숙함과 에너지력을 더했다. 한층 성장한 면모를 드러낸 것.

오마이걸의 변신은 대중에게도

달랐다. ‘살짝 설렜어’는 발매 직후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한 것은 물론, 28일 오전까지 이를 유지 중이다.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0만을 넘어섰다. 매일 매시간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오마이걸은 28일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번에 저희 7명이 함께 여태껏 5년동안 함께 잘 해왔다고, 열심히 잘 달려왔다고 상을 주시는 것 같다”며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이번 신곡 ‘살짝 설렜어’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진짜 상상도 감히 기대도 안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큰 행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박찬 소감을 전했다.

‘땀과 눈물’ 오마이걸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뒤 인기로 날개를 달았다. 이번 신곡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이를 입증한다. 오마이걸의 본격 전성기는 이제 시작이다.

뉴스1

‘라디오스타’ 율희 “아들과 친동생 나이 차 6살밖에 안나”

그들 라붐 출신 율희가 출산 후 2개월 만에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다.

29일 오후 11시5분 방송되는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박해미 홍윤화 임현주 율희가 출연하는 ‘여인천하’ 특집으로 꾸며진다.

쌍둥이를 출산하며 세 아이의 엄마가 된 율희는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남편 최민환의 입대로 인한 ‘독박 육아’에 대한 소문을 해명했다. 남편은 물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율희는 “전 육아가 체질인 것 같다”라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후문이다.

이도 잠시, 율희의 은밀한 이중 생활이 발각돼 관심을 끌었다. 육아만 집중할 거란 생각과 달리, “저는 아직까지 노는 스타일”이라며 밤새워 논다고 털어놓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었다.

율희는 또한 출산 전날 자신과 남편의 극과 극 반응을 털어놓았다. 출산을 앞두고 율희는 “금식 전까지 무조건 많이 먹어야지!”라고 천하 태평한 것과 달리, 남편 민환은 걱정이 태산인 모습이었다고 얘기했다. 특히 출산 후 남편의



반응을 전해 감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율희는 또한 “늦둥이 친동생과 첫째 아들의 나이 차가 6살밖에 안나”라고 밝히는가 하면, 부모님도 결혼을 일찍 하신 덕분에 5대가 함께하는 대가족이 됐다고 밝혀 감탄을 모은다.

이어 율희가 녹슬지 않은 댄스 실력을 선보인다. 걸그룹 활동 당시에도 댄스 담당이었다는 율희는 이를 통한 연습해온 있지(ITZY)의 ‘워너비’ (WANNABE) 댄스를 완벽 소화해 매력을 발산했다는 후문이다.

예성X수란 만났다

5월1일 SM 스테이션 ‘봄은 너니까’ 발매



그들 슈퍼주니어 예성과 가수 수란이 만났다.

레이블 SJ는 28일 ‘예성과 수란이 오는 5월1일 오후 6시 신곡 ‘봄은 너니까 (Still Standing)’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예성과 수란의 신곡 ‘봄은 너니까 (Still Standing)’는 봄이 돌아왔지만 늘 제자리인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멜로 어쿠스틱 팝 장르의 듀엣 곡이다. 예성, 수란의 깊이 있는 목소리를 통해 따뜻한 바람과 눈 부신 햇살에도 녹지 않는 기억을 말하듯이 풀여했다.

이에 예성, 수란은 28일부터 ‘SM 스테이션’ (STATION) 공식 SNS에 각종 티저 이미지와 라이브 클립 티저 영상, 인터뷰 등 프로모션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오픈하며 신곡 ‘봄은 너니까 (Still Standing)’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킬 예정이다.

한편 SM 스테이션에서는 라이브 클립, 인터뷰 영상 등 감각적인 신보 발표와 더불어, 기존에 발매돼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구보도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 시켜 독자적인 ‘SM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유, 신곡 제목은 ‘에잇’...슈가와 협업

가수 아이유가 컴백을 앞두고 첫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28일 0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몽환적인 느낌의 이미지를 게재했다.

또한 우아한 매력에 돋보이는 티저 이미지와 함께 신곡명 ‘에잇’이 처음 공개돼 신곡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아이유의 이번 신곡은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와 협업으로 알려져 발매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이유의 ‘에잇’은 지난해 11월 미니앨범 5집 ‘러브 포엠 (Love poem)’ 이후 6개월여 만에 발표하는 신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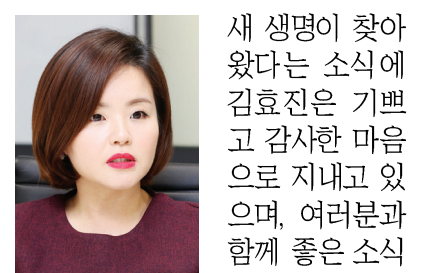
개그우먼 김효진, 45세에 둘째 출산 예정

임신 5개월...결혼 8년만

개그우먼 김효진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개그우먼 김효진이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라며 “현재 김효진은 임신 5개월로, 오는 9월 출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효진과 맺속에 있는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태교와 함께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2012년 첫째 딸을 품에 안은 이후 또 한번 귀한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김효진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항상 보내주시는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효진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도 많은 축복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1976년생으로 우리나라로 45세인 김효진은 지난 2009년 한살연하의 조재만씨와 6년 열애 끝에 결혼해 2012년 첫째를 출산했다.